

< 바른길을 걷는 건강한 대한민국 >

“바른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잠언 10:9]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직장, 학교, 가정에서 만나는 바른길과 굽은 길 사이의 갈림길은 한 개인 혹은 조직이 나아가는 길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

두 갈래 길 사이에는 청렴이라는 이름의 이정표가 있다. 승진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마음의 소리를 따르는 양심, 규정을 지키는 공정함,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의식, 부당한 혜택을 거절하는 결단력,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직업윤리, 불법에 동참하지 않는 용기도 바른길을 가리키는 청렴의 다른 이름이다. 멀리 돌아가는 듯하나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목적지로 이끄는 바른길을 선택한 이와 그렇지 않은 이의 말로를 짚은 지혜의 왕 솔로몬의 경구는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유효해 보인다.

우리 사회는 청탁금지법을 통해 굽은 길을 제도적으로 폐쇄했다. 확연하게 줄어든 연말 접대문화 덕에 야간 운행을 그만두고 불면증이 사라진 택시운전사, 매년 무리하게 보내던 거래처 선물 부담에서 해방된 영세 달력공장 사장님, 재계약을 위한 발주사 접대 대신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갖게 된 회사원 등 수기의 사례들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삶에 가져온 변화의 면면들을 보여준다.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답례떡을 남겨놓고 연락이 되지 않는 퇴원 환자로 인해 난처했던 간호사의 이야기는 해당 법이 당장은 번거로워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답례 문화 자체도 변화시킬 수 있겠다는 기대를 남긴다. 선물 받은 사람의 난처함 그리고 그것을 돌려주느라 겪은 고생을 알게 되면 제공자는 인식의 변화와 행동의 교정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은 장·단기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를 바른길로 이끄는 혁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 정도는 괜찮아,’ ‘당사자들끼리만 조용하면 돼,’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라는 정당화와 조소, ‘친구 좋다는 게 뭐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내 아들 덕 좀 보겠는데’ 라며

학연, 지연, 혈연 등 관계를 앞세운 회유와 협박이 존재한다. 하지만 굵은 길이 곧 지름길이라는 설득에 응하는 것은 개인과 조직 안에 노폐물을 쌓아 탁한 피를 돌게 하는 일이며, 이러한 문제가 깊어 터지면 극심한 고통과 비용이 따르는 대수술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수기의 사례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청렴을 실천하여 자신과 조직의 생명을 살린 이야기들이다. 외압 혹은 내면의 유혹에도 바른길을 걸으며 주변에 투명한 영향력을 끼친 이들의 삶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청렴은 부당한 관행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에서 시작된다. 불합리한 재계약 조건이 이제껏 선물과 인사를 소홀히 한 탓이라는 선배들의 지적에도 ‘관행이라는 사회적 비양심’에 동참하지 않은 방과 후 교사, 청탁금지법이 없던 시절에도 일절 선물을 받지 않던 교사는 기존 관행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선물을 제공하지 않거나 받지 않음으로써 청렴을 실천했다. 이처럼 예민한 문제의식은 매사 신중히 근신하는 개인의 몸가짐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조직의 인습을 끊는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 암묵적으로 용인되어온 군 고위직의 부대 부식 무단 반출에 대한 한 군인의 용기 있는 문제 제기가 부대 전체의 썩은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된 사례는 그런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둘째, 진심은 물질의 가치를 넘어선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도박장 주인의 뇌물을 단칼에 거절하여 뒷돈이 통할 것이라는 한 사람의 인식을 바꾼 경찰관, 학생들이 몇몇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촌지를 받지 않은 선생님의 사례는 대가성 물질에 관한 이야기지만 대가성 없이 순수한 감사의 표현으로 물질을 사용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거둬진 도움에 감사와 미안함을 담은 시민의 돈을 돌려준 소방관,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나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뢰인들의 편지를 보물로 여긴 공익법무관은 그들에게 마음 그 자체로 충분함을 일러준다. 술선하여 골목 청소를 하다 주운 돈 봉투를 고민 없이 지구대에 신고하고 사례금도 거절한 어머니와 스승의 날 선물 살 돈이 없어 들꽃으로 직접 만든 꽃다발을 건넨 아이를 모두 앞에서 따뜻하게 안아준 선생님도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가르침을 준다. 진심은 위기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자신보다 승객의 안위를 우선시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버스 기사의 마음은 승객들의 마음으로 전달되어 사고에 대한 항의가 아닌 감동의 박수를 받았다. 다른 후보자들과는 달리 유권자의 마음을 돈으로 구걸하

지 않은 아들이 학생회장에 당선된 사례는 진정성과 대비되는 물질의 한계도 보여준다.

셋째, 규정 준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다. 승진을 빌미로 부대 물자를 빼돌리라는 부패한 상관의 요구를 거절한 군인은 규정을 지켜 일반 사병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막고 결과적으로 본인도 장기복무 후 명예 전역할 수 있었다. 세금의 납부와 사용에서도 규정을 지키면 자신에게도 부담으로 돌아올 증세를 막고 오늘의 복지국가를 지킬 수 있다. 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신고한 중국어학원장, 실업급여 부당수령의 유혹을 이긴 여성의 이야기는 그런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한편 치어들까지 잡는 불법 어구를 사용하면 당장은 편해도 향후 모두가 잡을 것이 없어진다는 어부의 해안은 규정이 불편하고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동종업계 종사자들과 생태계까지 살리는 상생의 장치임을 알려준다.

그러나 청렴의 실천은 때로 관계의 충돌을 수반한다. 각자 맡은 구역만 담당하는 개인 방역 특성상 근무 태만 및 사사로운 청탁의 유혹에 빠질 수 있었으나 양심을 지키며 성실히 일한 청년, 친분을 앞세우며 사사로이 구급차를 얻어 타자는 지인의 요청을 거절한 소방관은 동료들의 빈축을 사거나 청탁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면전에서 욕을 먹어야 했다. 이처럼 청렴의 실천과 호혜적 관계의 유지라는 가치의 대립을 어떻게 원만히 풀어낼 수 있을까?

먼저 선물, 특히 거절이 애매한 음식을 받게 된 경우를 살펴보자. 음식을 대접 받은 저승사자가 염라대왕의 수명 명부를 빼돌려 열십(十)자를 천(千)자로 조작해 수명을 연장해 주었다는 설화가 있을 정도로 음식은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보호관찰관들에게 가져온 학생의 음식에 ‘정당한 값’을 치러 문제 상황을 해결한 사례는 무릎을 치게 했다.

다음으로 청렴의 가치가 설득되지 않는 가까운 인물을 상대로 청렴을 실천해야 하는 경우를 보겠다. 국립공원 대표소 직원으로서 입장객들에게 표를 팔거나 조계종에서 돈을 내고 발급받는 신도증을 확인해야 하지만 가족 사이에 이를 불필요한 돈 낭비로 여기는 노모와의 실감 나는 갈등은 공감을 자아냈다. 결국, 어머니의 화를 돋우는 대신 몰래 신도증을 발급받음으로써 갈등상황을 우회하고 직업윤리와 효라는 가치를 모두 지켰던 그의 기지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마지막으로 부패에 대한 문제 제기가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다. 부식 반출에 대한 문제 제기에 불쾌해했던 대대장은 갑작스러운 부대 내 사망 사건들로 모두가 당황스러울 때 구원투수처럼 나서서 무사히 수습해준 해당 부하 군인을 보며 그의 진의를 깨닫는다. 이는 그 어떤 사탕발림 말이나 뇌물보다 탁월한 업무처리가 상사에게 가장 큰 고마움과 감동을 준다는 간과하기 쉬운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

지금까지 수기들을 통해 청렴의 실질적 실천방법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일궈내어 개발도상국들에 중요 참고사례가 됐던 우리나라가 이번에는 청탁금지법으로 굳게 막은 굽은 길을 뒤로하고 청렴을 실천함으로써 바른길을 걸어가 세계에 ‘선진 청렴 사례’를 남길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그 중심에는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있는 양심으로 부패를 걸러내고 대한민국에 맑은 피를 돌게 하는 우리 국민들이 있을 것이다.